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찬란한 인간 승리, 국농(菊濃) 진평왕릉 참봉



권오신
컬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국농(菊濃) 권혁근

2022년 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신라 진평왕릉(眞平王陵) 참봉(參奉)으로 임명된 국농(菊濃) 권혁근(權赫根, 77살) 좌윤공파종회 감사는 경주 지역 향중 대표 유학(儒學)이며 자원봉사자(自願奉仕), 효손(孝孫)으로 이름났다.

임란의 병장(壬亂義兵將)이시자 임란(壬亂) 이후의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향약(鄉約, 향촌의 차지구약)을 만들었던 구사재공(九思齋公, 휘(諱) 복시(復始, 24세)부터 선고 보은공(補隱公, 휘(諱) 영재永載 1919~1984)에 이르는 효손(孝孫)의 전통을 이었다.

2018년 선고(先考) 보은공(補隱公)의 행장을 정리한 74쪽 분량의 “보은공사적(補隱公事蹟)”집을 출간하는 한편으로는 조부(祖父, 휘(諱) 의수宜守)의 위토답(位土答)을 마련하고 선대의 묘역(墓域) 조성이 완성되는 날, 권보은계(權補隱契)를 만들어 종종 등록을 마쳤다.

자신이 힘들게 일군 농토를 종종에 귀속시켜 사후에도 조선(祖先)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며 종종 등록에 앞서 출가한 여동생까지 다섯 형제에게 논밭을 나눠주어서 맏이의 역할을 다했다.

2001년 선고의 유집 “보은공사적(補隱公事蹟)”을 펴낸 당시 봉화 송석현(松石軒) 주인 권현조(權憲祖) 공으로부터 보은재기(補隱齋記) 받았던 국농(菊濃) 참봉은 지난 2020년 가을 이 시대의 마지막 유학자(儒學者) 헌조(憲祖) 공의 사적비를 세우자는 논의가 있을 때 수갈 비용 5백만 원 전액을 부담했다.

그의 미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시 강동면 국당들, 농사철이 되면 환자 사는 노인 집 논갈이나 가을견이를 도와주고 수확이 끝나면 쌀가마니를 경주 유림회관까지 손수 운반, 한학(漢學)을 배우는 유생들의 간식용 떡쌀을 제공했다. 이런 선행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흘기 대회에서 장원(壯元) 상을 받은 실력자답게 안동 시조 대축(2022년 춘향)을 비롯 태사묘, 숭혜전, 연원재(燕院齋), 절등 등 경주, 안동, 예천 지역 원사당의 대축, 접례, 분정을 맡는 등 활동 범위가 도내 전역이다.

최근엔 경주향교, 정풍회, 안동 시조소와 태사묘, 연원재 등 종종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모은 ‘참봉참봉 권혁근(權赫根 고행록(高行錄)’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마무리 편집을 서두르는 ‘참봉참봉 권혁근(權赫根 고행록(高行錄))’을 먼저 들여다봤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글은 열일곱 살 나던 해 중학교 3년 과정을 주경야독(書耕夜讀)으로 2년 만에 마친 학업에 대한 의지였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

고 군 전역 후 포스코(포항제철) 자회사인 ‘거양로공업’에 거둔히 합격했는데 이를 두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꿈같은 새 출발이 됐다.”고 회고했다. 월급과 상여금을 저축, 논밭을 늘리고 소를 길러 가정 살림을 탄탄하게 만들고 종종 등록을 했었다고 적었다.

거양로 공업에서 20년을 열심히 일한 능력이 인정돼 대동로 공업(포스코 협력업체) 주임으로 초빙됐다. 급료가 늘고 여유가 생겨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 했으나 양위(兩位)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다.

1996년 48살 나든 해 번듯한 한옥 골기와 집을 짓고 당호를 6년 전에 고인이 되신 선고(先考, 휘(諱) 영재永載)의 호를 따 보은재(補隱齋)로 명명, 사후나마 부모님이 편안하게 재숙(齋宿) 할 수 있도록 해 효손집 후손의 끈을 이었다.

경주향교 평생교육원 한시반(漢詩班)에서 3년간 한시(漢詩)를 배웠다. 선고(先考)로부터 익힌 한문 실력이 깔려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에서 수상의 영예를 몇 차례나 누렸다. 추모김유신장군(追慕金庚信將軍) 대표작이다.

신라 진평왕릉(眞平王陵) 참봉 도임까지 그가 맡았던 지난 30년간의 사회봉사 직책도 다양하다. 경주시장이 위촉한 “복지위기 가구 밭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해 성균관(成均館) 관장 임명 경주향교장(慶州鄉校掌講), 농촌지도자 연수위원, 119명에 소방관, 서악서원(西嶽書院) 육산서원(玉山書院) 구강서원(龜江書院) 접례 대축 등 위촉장, 망(望)이 100장이 넘으며 각 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상패, 감사패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유립단체 행적도 다양했다.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 급제자(及第者)와 사마(司馬試)에 입격한 선비들이 모여 강론을 나눴던 경주 최대 유립단체 사마소의 후신인 정풍회(整風會)와 사단법인 담수회, 성균관유도회(成均館儒道會), 사단법인 한강학회(성리학자 한강寒岡 정구鄭述 선생을 주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모임) 등에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활성한 활동력을 보인다.

이 책의 백미는 국농 참봉이 말미(末尾)에 기록한 글이다.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아직 100대 자친(至親) 간이니 향렬자를 지키고 학수의 정”을 강조한 대목이었다.

마무리 편집을 서두르는 ‘참봉참봉 권혁근(權赫根 고행록(高行錄))’을 먼저 들여다봤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글은 열일곱 살 나던 해 중학교

3년 과정을 주경야독(書耕夜讀)으로 2년 만에 마친 학업에 대한 의지였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

물산과 인물을 소통시키는 곳, 원주 흥원창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남쪽 30리에 있다.

원주와 평창·영월·정선·횡성 등의 전세와 세곡을 수납하여 조운으로 서울에 가져간다.” 조선뿐만 아니라 이미 고려 때 조운제도가 있어서 남방 연해 안과 한강 수로에 12조청을 두고 조세로 징수한 미곡이나 포도를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흥원창은 한강의 대표적인 창고였다.

조선 후기에 흥성했던 흥원창의 모습은 1796년에 정수영(1743~1831)이 그린 ‘한·임강명승도권’에 남아 있고, 정약용의 시 속에도 살아 있다. 1819년 4월 15일, 정약용은 큰 형과 함께 충주로 가던 중 흥원창을 지날 때 “흥원포(興元浦)에 있는 옛 창고 건물은 / 가로지른 서까래 일자(一宇)로 연했어리”라고 묘사했다. 창고 건물들이 강변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성해옹(1760~1839)이 좋은 땅 [名塢] 중 하나로 선택한 곳은 흥원창이었다. 배가 다니는 강이 넓게 트여 양쪽 기슭의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리(地理)가 가장 좋은 곳으로 관동 일대의 곡식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흥원창의 백성은 배를 운행하는 일에 종사하여 서부가 된 자가 많았다. 법천리에 살던 정병조(1723~1801)는 ‘섬강곡’에서 강변에 70가구가 있을



정도로 변장한 흥원창을 그렸다.

등불 켜고 나무 사이로 지나가니 / 明燈過樹杪
아마도 한양에서 오는 배겠지 / 知是三江船
금년에는 소금이 풍년이니 / 今年賣鹽多
소금값을 따지지도 않겠지 / 塩價無論錢

흥원창과 인접한 섬강은 정법조의 ‘현산유거기’에도 묘사한다. “초당의 서쪽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산과 나란히 북으로 달려 서쪽으로 꺾이면 한강이 된다. 오른내리는 배가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너머



로 날마다 뚜렷하게 보이며 오리와 갈매기들이 날아서 모이는 모습이 모두 책상 앞에서 보인다. 초당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멀리 하늘에 의지하여 높다란 것이 섬암(蟾巖)이다. 바위 절벽이 비가 오고 나면 더욱 파랗게 되어 섬암 곁의 인가가 어리비친다” 정법조는 작은 배를 강에 띠우고 아래로 내려갔다. 섬암을 구경하다가 지겨우면 돌아왔다. ‘봄날 어른과 아이를 이끌고 섬암까지 배를 띠워 노닐다’란 시를 짓기도 했다.

안석경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원주 법천 땅의 장사꾼은 흥년에 쌀을 싣고 서울로 향하였다. 10

년 동안 거래하던 객주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장사꾼은 쌀 몇 되의 도움 요청에 대해 들은 척도 않고 다른 객주 집으로 갔다. 그 뒤 다시 옛 객주에게 다시 가보니 죽은 줄로 알았던 그 객주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부가 돼 있었다. 장사꾼은 부끄러움에 남한강에 다시는 배를 띠우지 못했다.”

이익과 의리 사이에서 망설임도 없이 이익을 택하였던 장사꾼은 나중에 부끄러움 때문에 한양으로 향하지 못했다. 이미 돈 쪽으로 추가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